

소설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애덤 스미스의 경제와 철학



애덤 스미스 구하기
조나단 B. 화이트 지음

애덤 스미스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대명제다. 그는 경제학자 특유의 해안과 식견으로 경제학, 정치학, 자연과학, 예술,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200년 동안 서투른 모방과 오보에 가려져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장경제의 필수사항인 신뢰, 도덕을 강조하는 애덤 스미스 철학이 우리 사회를 존속하는데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한다.

교과서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애덤 스미스 사상을 쉽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리치먼드 대학교 로빈스 경영대학원 조나단 B. 화이트 교수가 펴낸 '애덤 스미스 구하기'는 '세계화 논쟁에 접근해 해답을 찾아가는 경이로운 학술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향간의 평가대로 책은 애덤 스미스의 철학과 사상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다.

부의 창출과 상거래, 시장 실패와 국가의 역할, 신규 시장의 구조 개혁, 자본주의의 도덕적 토대, 경영과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는 정의와 도덕의 외면으로 인해 파생되는 자유로운 사회와 시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허스트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는 리치먼드 번스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대상은 애덤 스미스의 영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노인이다.

부활한 애덤 스미스와 번스는 우여곡절 끝에 여행을 시작하고 그들은 알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의 위협 속에 긴장감 넘치는 추적전을 펼쳐간다.

이들의 모험과 함께 책 속에서 전개되는 주인공 번스와 부활한 스미스의 대화, 또 그들이 여행길에 만나는 벤처기업 CEO 피터 첸 등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제학의 아버지'는 시장은 절대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며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돈은 절대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성공의 척도에 불과하며, 부의 무절제한 추구는 반드시 파멸로 연결된다고 역설한다.

<북스토리> 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철학을 씨줄로 역사를 날실로 엮어 조망

역사와 철학 융합 ... 12년만에 개정 출간



철학, 역사를 만나다
안광복 지음

대부분의 철학은 딱딱하고 고루한 '방구석 학문' '상아탑 학문'이라는 편견이 강했다. 철학을 텍스트로 체득하는 방식은 깊은 공부와 지식을, 철학 입문자에게는 고역과도 같다.

역사와 철학의 융합을 상징한 '철학, 역사를 만나다'는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이자 베스트셀러다.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의 저자 안광복

이 펴낸 책으로 12년 만에 개정돼 출간됐다.

저자는 철학을 씨줄로, 역사를 날실로 엮어감으로써 일차원적인 시각을 넘어 역사와 철학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몰락하면서 등장한 플라톤 이상 국가론이나 춘추전국 혼란 정국에 나타난 공자의 유교 사상, 유럽 열강 사이에서 약소국 독일에 태어난 헤겔의 절대정신까지 담겨 있다.

이들의 사상은 한 시대를 이끌고 다음 시대의 문을 여는 당대 철학이 되었다. 이는 철학과 역사가 별개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양분 삼아 발맞춰 왔음을 보여준다.

<어크로스> 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정희 시대, 대중문화의 욕망을 읽는다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이영미 지음



이미지의 대중가요 '동백아가씨'는 1960년대 초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노래였다. 그러나 이 노래는 얼마 후 금지곡이 된다. 노래의 부상과 금지 과정을 보면 당시 민심의 흐름과 집권자들의 '술수'를 엿볼 수 있다.

'동백아가씨'는 왜색(倭色)이라는 이유로 금지당했다. 가장 대중적이었고 유명한 '동백아가씨'가 표적이 된 것은 당연했다. 금지곡 지정은 저간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당시 정부는 한일수교 추진으로 사회가 술렁이던 때였다.

5·16군사쿠데타, 동백아가씨, 아침이슬, 조국 근대화, 잘살아보세, 국가비상사태, 포크, 장발족, 금지곡, 대마초, 히피 등...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를 무슨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갔을까? '박정희'와 '대중예술'이라는 조합은 여전히 선입견을 준다.

박정희 시대 대중문화의 욕망을 읽어내는 책이 출간됐다. 성공회대 이영미 초빙교수가 펴낸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는 대중예술이라는 문화를 매개



가수 이미지의 '동백아가씨'는 한일수교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솟아올랐다가 사라졌다. 한일수교 반대 시위 모습.

로 박정희 시대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박정희 시대 대중문화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풍속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대 최고의 화제작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과 영화 '자유부인'은 사교춤과 관련이 있다. 박정희는 민심의 호응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수법을 동원했는데, 5·16군사쿠데타 직후 단행된 사교춤 철폐는 그런 사례였다.

1960년대 라디오 방송곡은 '국민계도'라는 메시지가 부각되는 예술이었다. 방송곡은 모범적이고 건전해야 했기에 미국적 자유주의 바람을 어느 정도 수용되고 과도한 이탈은 자제돼야 했다.

최고급 스타를 동원한 '팔도강산'은 박정희 정권의 홍보영화였다. 정치적 색깔이 담긴 이 영화가 개봉된 시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대통령직은 4년 중임제

였으니 박정희에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재임을 위한 지렛대였다.

70년대 꽃을 피운 청년문화와 정치적 진보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시의 포크는 이기적인 물욕, 성욕 등에 대한 비판 성향의 작품을 다수 포함해 나름 윤리적 태도를 견지했다.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한 물질화와 비윤리성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전통문화나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실천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학에서 탈춤반 동아리가 생겨났고 판소리 감상도 인기가 있었다. 청년문화의 '버터 뱀새'가 못마땅한 대학생들에게 전통예술은 명분과 재미를 주는 매개체였다.

대중가요 관계자들은 '1970년대 대마초 사건이 없었다면 한국 대중가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론 나아갔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청년문화의 유행이 대도시 고학년 청년들에게 한정된 현상이었다.

박정희 시대가 끝난 지도 열주 40년이 돼갔다. 그 시대는 감정적 호불호 대상이 되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저자는 유신 말기 폭압적 상황은 당대 젊은이들을 어느 방향으로가 몰고 갔다고 단언한다. 10월 유신과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지만 여파는 전두환 시대를 거쳐 노태우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뿌린 씨앗을 노태우가 허덕이며 거두고 있었다. 오늘의 박근혜까지 그 묘를 감당하고 있으니, 역사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가!

<인물과사상사> 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외와 불안의 문제 개인의 삶 통해 포착



빛의 호위
조해진 지음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이효석문학상을 잇따라 수상한 조해진 작가가 세 번째 소설집 '빛의 호위'를 출간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한 작품을 묶어낸 소설집에는 모두 9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특히 "소외와 불안의 문제를 개인의 삶을 통해 포착"하며 "이 시대에 호응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

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환기한 작품"(심사평)이라는 호평을 받은 이효석문학상 수상작 '산책자의 행복'도 실려 있다.

이번 작품집에서 작가는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역사와 인간의 문제를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특히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어둠속에 숨어있던 진실들도 깊은 시선을 건넨다.

저자의 소설 쓰기는 "나와 나의 세계를 넘어서 인물들"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소통"하고 "우대를 맺"으며 타인의 생애에 빛을 드리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창비> 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일어난 일들 시사 풍자카툰



야매공화국 10년사
정훈이 지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포복전도의 풍자로 다룬 시사풍자카툰 '야매공화국 10년사(事)'가 출간됐다. 정훈이 작가는 지난 10년간 두 대통령이 만든 '사이비 야매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영화를 소재로 패러디했다. 1장에서는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다

자괴감이 든다"는 대통령에게 '마리 안통하네트는 마리오네트'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2장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 된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삼질의 추억'을 되새긴다. 3장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의 구체제 '양시영 레짐'에 박정희의 박, 이명박의 박, 박근혜의 박을 섞어 만든 '박시영 레짐'을 완성시켜 어떻게 그들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대부분의 풍자가 툴이 한 컷 혹은 네 컷 만화인데 그치는 데 비해, 정훈이 작가는 영화의 스토리처럼 두 가지 재미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생각의길> 1만5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